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이 시급”

김왕근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의회 회장

Interview / 대담 : 김병오 편집국장

“환경기술인은 산업현장의 환경파수꾼이요, 미래 환경을 책임지는 시대의 전도사입니다. 이들에게는 환경을 지켜야하는 책임과 동시에 위상강화를 통해 권익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왕근 회장은 환경기술인의 존재가치를 역설했다. 김 회장은 20여년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외길을 걸어왔으며, 현재도 환경기술인으로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김왕근 회장을 찾아 그의 환경관과 최근 활동내용을 들어봤다.



흔히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 김왕근 회장님의 환경관을 피력해 주시죠.

▲ 과거 60-70년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내집 마련이 서민들의 최대 목표였다면 21세기에는 어떻게 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주위의 경관 즉 조망권과 일조량 등이 우선시 되고 새집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염려하며 주거 선택을 달리 하니깐요.

그래서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민들의 환경의식 보다 한발 앞선 정책이 수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하되 미래를 생각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프장을 유치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 백두대간 수십만 평방미터를 훼손하여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골프장을 만든다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간척사업으로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는 등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발과 보전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 회장님은 현재 환경기술인으로써 환경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백제환경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12년 동안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과 환경기술인협회의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기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환경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시설진단 후 적정처리시설과 처리약품 등 필요한 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입니다.



방지시설업을 운영하다보면 환경정책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술인력 의무고용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위탁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상근하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업에서는 구조 조정시 생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환경기술인력 감원이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들어 지도 단속권이 지체로 많이 이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정부는 단속보다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두고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지도 단속권 등 환경업무가 지자



◀ 기술발표회 장면

환경관련법 해설 ▶



체로 이양은 시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 기업의 육성과 감시를 같은 단체장이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단속과 지도는 현실을 감안한 행정 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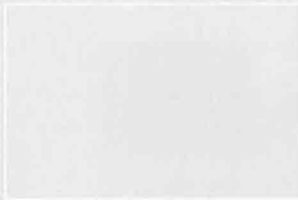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정부환경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소한 부분은 충분히 지도 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 협의회 같은 전문 기술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단체의 수장으로서 보람과 더불어 애로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한 말씀 주시죠.

- ▲ 광주전남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 보람이라고 한다면 일선 환경기술인들이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애로사항을 부담없이 상담하고 협의회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와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방지시설이 완공되어 성공적으로 가동될 때, 영세사업장이 기술지원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 애로점은 예산과 시간상 모든 문제업체를 지원하지 못함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모든 기술인들에게 지원과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 할 때와 회원들이 소속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우리 협의회에서 계획한 교육 등 지역환경보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정보와 기술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능력있는 회원들이 다른 회원사와 회원들의 지원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지자체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관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출업소의 기술지원 등 흠덕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환경관리는 어떠한지.

▲ 우리 협의회에서도 전라남도와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대기업소속 회원들이 참여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담당공무원,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대학교수가 참여하여 1개 지원팀 구성을 환경기술인, 공무



제21차 총회▶



◀환경실천대회



회, 농촌지역 등을 찾아다니면서 생활 환경지침서도 배포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합성세제 적정량사용하기'와 일반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셋강 살리기 운동과 생활 속에 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환경실천 가족캠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술인을 대표해 정책당국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의 환경기술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당국에 건의 사항이라면 각 대학교에서 환경전문 기술을 익힌 기술인들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와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원, 교수 3인 1조로 하여 분야별로 지원 하고 있으며, 팀당 2-3개 업체씩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 금년사업은 회원과 회원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자합니다.

회원과 기업을 대상으로는 환경신기술발표회 및 설명회, 환경관련법설명회, 회원업체 상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사업으로는 우리 협회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2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 회원은 100% 환경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단체 보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에만 중점을 두었던 사업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 회원 상호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이 가정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에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환경운동이지요. 기업체 종사자,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부녀

또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을 환경기술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단체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기술인들은 전문가격을 가진 환경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답게 기술력을 발휘하여 지역과 국가에 내가 필요한 부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이 있기에 우리 환경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더 한층 노력 했으면 합니다. (☺)

▼ 환경보전 캠페인



김왕근 회장 프로필

학력 및 경력

-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의회장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전)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위원 및 집행위원(전)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부회장(전)

자격사항

- 환경분야 특급기술자
- 수질환경기사
- 대기환경기사
- 소음·진동환경기사
- 산업안전관리기사
- 소방설비기사

상훈

- 대한민국환경관리 동장 수상
- 환경부장관상 수상
- 광주광역시시장상 수상

논문: 응집보조제로서 denim공장 오페수 이용에 관한연구

